







#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를 창조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일본새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평가를 받은 평양무래도전차공장개건과정을 놓고

최근 평양무래도전차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비약의 돌파를 타고 당중앙위원회 4월전위원회 결정을 결사판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질풍처럼 내달리고 있다.

지난 1월말 새로 개건된 평양무래도전차공장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어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이 공장의 경험을 따라배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높은 요구를

### 기술개건도 대중의 정신크발동에 달려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은 사상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공장개건과정도 역시 대중의 정신크가 발동될 때 그 위력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평양무래도전차공장개건공사가 처음 시작될 때 목표는 그리 높지 못하였다.

공장일군들이 타산하고 세운 목표라야 이것에서 건물 몇동이나 짓고 남은 건물들을 보수하는 것과 함께 사정된 설비들을 되살리는데 머물러있었다. 실례를 보여준 평양시당책임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연식기 당에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기술로 개건하고 모든 부문을 현대수준에 올려놓을 것을 바라고있지 않는다. 그런데 최선기술장비를 갖추지 않는 공장개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전국자연보호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자연보호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23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관내부 일군들, 자연보호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한 발표회에서는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성남동지께서 개회말씀을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작품을 발표하시고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모장군과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모장을 받으시어 나라의 산물을 황금으로,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방략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담하게 제기하고 생산공정도 기계설비, 제철포장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평양무래도전차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 시기보다 로력과 전기를 훨씬 절약하면서 더 생산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며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그 비결은 지역자장으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장을 로력절약형, 에너지절약형으로 개건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게 통합생산체제를 잘 구축해놓는데 있다.

원인은 공장일군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개건의 목적과 의의를 특출히 모르고 목표를 형식적으로 세운 데 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시당위원회에서는 수도려객 운수국인과 신안위들과 시민의 력량을 집중하여 건축공사를 다그치는 한편 심비현대화를 위한 과학기술력량을 동원히 꾸리고 그들의 사업에 많은 힘을 넣었다.

이것이 찾아보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공장개건의 직접적담당자인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현대화목표실현의 주인공들로 내세우고 그들의 정신크를 총괄받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였기 때문이다.

시당위원회와 수도려객운수국,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깊이 들어가 힘과 용기를 주고 방도를 함께 모색하며 그들의 창의발상을 적극 불러일으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책임일군들이

세 계적인 기계제작공정의 실패도 구체적인 연구하고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때 이들의 신념은 오직 하나였다. 당의 뜻을 받들어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개건하자! 이런 투쟁적 신념은 공장의

아름찬 파제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보며 시당책임일군이 말하였다.

《물론 목표가 높은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공장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이 있는 한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일군들이 그들의 정신크를 불러일으켜 높은 세운 목표를 반드시 수행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드립시다.》

책임일군의 힘있는 호소에 힘의외침가자들도 적극 호응해나섰다.

이렇게 되어 공장개건을 위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수도려객운수국인의 신안위들과 시민의 력량을 집중하여 건축공사를 다그치는 한편 심비현대화를 위한 과학기술력량을 동원히 꾸리고 그들의 사업에 많은 힘을 넣었다.

이것이 찾아보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공장개건의 직접적담당자인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현대화목표실현의 주인공들로 내세우고 그들의 정신크를 총괄받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였기 때문이다.

시당위원회와 수도려객운수국,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깊이 들어가 힘과 용기를 주고 방도를 함께 모색하며 그들의 창의발상을 적극 불러일으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책임일군들이

세 계적인 기계제작공정의 실패도 구체적인 연구하고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때 이들의 신념은 오직 하나였다. 당의 뜻을 받들어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개건하자! 이런 투쟁적 신념은 공장의

공로있는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정치적으로 평가해주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데도 많은 힘을 들였다.

시당위원회와 수도려객운수국, 공장책임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이신각적, 쓰거운 일군들은 공장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가슴을 달구어주었다. 공장의 그 어디서나 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 자기 힘을 믿고 달라붙을 때 못 해 낼 일이 없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며 첨단과학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기술발전주기가 날을 따라 부단히 앞당겨지는 오늘날의 시대는 누가 첨단과학의 주도권을 쥐는가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양무래도전차공장의 설비 현대화과정이 뚜렷한 실례로 된다.

처음 공장일군들이 설비현대화 문제를 놓고 세운 목표는 원상복구에서 머물러있었다. 호르니와 CNC는 꿈이었고 그것에서 사정되었는 설비들을 되살리고 도색하는데 머물러있었으며 첨단설비들은 수입하는것으로 계획되어있었다.

하지만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구조를 완비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쏘아박고 새로운 높은 목표로 도전해나섰다.

이때 이들의 신념은 오직 하나였다. 당의 뜻을 받들어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개건하자! 이런 투쟁적 신념은 공장의

나라의 수리동력기술인재양성의 전당인 함흥수리동력대학에서 최근년간 훌륭한 과학연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전국대학과학연구성과전시회 전국과학기술총회, 5. 21 진흥축전, 전국기술발전축전 등 여러 축전과 전시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과학기술성공과특별공로발령증서를 비롯한 기술혁신증서와 학위학식수유자에게 수여되는 훈장, 표창, 연구사들이 이룩한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대학에 대한 위계과정에 우러나는 첨단과학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잘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앞장서서 짜고들고있는 일군들의 진취적이며 혁신적인 사업가정에서 그 비결을 찾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각적의 일분한가 안받침이요 우리에게 절명 못할 요소도

직장들과 작업반들에서 새로운 발명과 창안을 더 많이 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평범한 기계공들도 온 공장이 아닌 발명가, 창고고안자로 이름을 떨치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이 과정에 혁신적인 인물이 수없이 쏟아져나왔고 공장의 인적조종화, 호르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도 잇달수 있었다.

### 우리 나라의 정명숙, 문현경선수들 제33차 세계군대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33차 세계군대레슬링선수권대회 여자레슬링 55kg급과 59kg급경에서 우리 나라의 정명숙, 문현경선수들이 우수의 영예를 떨쳤다.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 도이쎈란드, 마자르, 이란을 비롯한 22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선수 270여명이 참가하였다.

승리의 신념에 넘쳐 경기들에 출전한 정명숙, 문현경선수들은 불굴의 정신크와 완강한 투지,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맞대결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각각 1위를 쟁취하였다.

### 민속전통을 빛내는데 기여한 연구성공들을 이룩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자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민족의 우수성을 빛내는데 이바지하는 민족자료발굴사업에 열심있게 최근 몇달동안에도 대수집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조선민족정통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 고구려공화국, 《중세 단창혁명의 시기적특징에 대하여》를 비롯한 문헌들에서 연구자들은 조선민족이야말로 지혜롭고 문명한 민족이라는것을

한편 박은광선수는 남자자유형 57kg급경에서, 연조화선수는 여자레슬링 57kg급경에서 각각 은메달을, 권은남선수는 남자고전형 55kg급경에서 동메달을 받았다.

23일 우리 선수들이 귀국하였다.

경양에서 판계부서 일군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같은 자료들은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유산과 무용유산에 대하여 깊이있게 서술한것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연구소에서는 고조선과 고구려를 비롯한 대륙국가문화의 의의와 상과 풍습에 대한 자료들을 현안단위들에 보내주어 흥미있는 대대적인정통교육과 역사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도 연구소에서는 민족유산과 민족의정통을 정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사업실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제 그들은 친자처럼 느껴지는것이 저의 솔직한정입니다. 제 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여 때론 영광을 받아내고 돌아왔을 때에도 김형일동무들 비롯한 인민위원회일군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 독자의 편지

제가 김형일동무를 비롯한 평안남도인민위원 일군들을 알게 된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히 싸운 전쟁로병이라고 친한우의 정을 다하여 동보해주고있습니다. 그들이 저의 편지에 필요한 보약이며 저가 저기 부식물들을 인민 수위로 집에 찾아올 때마다 인민 수위로 부식물하는 일군들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합니다.

### 능률높은 농기계를 받아들이며

환경대구역 환경대남새전문농장에서

포전준비를 잘하는것도 튼튼한 모를 길러내는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능률높은 농기계가 포전준비를 민들없이 하면 모내기의 최적이공정을 위한 단계를 마련한 환경대구역 환경대남새전문농장 일군들의 사업기쁨이 두둑하다.

# 우리 당의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뜻을 현실로 꽃피워갈 불같은 열의

## 인민을 위하여 하여 복무함!

### 수도려객운수국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리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우리가 메달이다싶이 보고 리용하는 케도전자, 무케도전자, 베스틀이다.

하지만 누가 알아주진말건 인민을 위한 복부의 길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애국자들이 있음을 사람들은 다는 모를 것이다.

사회주의본래를 지키며 인민의 복부자로 삶을 빛내이는 수도려객운수부문에 로동계급과 연구사들의 생활을 아예에 펼친다.

수도에는 수십쌍의 부부운전사와 80여명의 녀성운전사들이 있으며 15명의 공존자동차 운전사들도 있다.

인민을 위한 복부의 길에 한생을 장그러 바쳐가고있는 이런 사람들을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높이 내세워 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생 수리공 일을 해온 자기들이 대의원이 되고 인민참심원이 된대 대하여

영

옥류교를 건너 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문수지구의 병원촌으로 향하러나던 자그마한 연구소가 보인다. 평양운수기술연구소이다. 수십년전에 생겨난 이 연구집단이 소문없이 큰일을 하고있다. 지금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새형의 무케도전자제작에서 제일 중요한 조종장치설계와 제작과 바로 이 연구집단이 했다.

연구소 소장 정수철, 부소장 장인 박철호, 김광철동무는 김철영연구총괄학 졸업생들이다. 그들이 연구소에 배치되었을 때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속에 수도 평양에 케도전자들이 달려가 시작한 때였다.

(보람이 있을것이다.)

그들 누구나의 가슴속에 이런 생각이 고여있다. 그즈음 수도의 곳곳에서는 새 케도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칠줄 몰랐던 것이었다.

그때부터 케도전자, 무케도전자, 베스의 정상가공을 위한 그들의 연구사업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평양무케도전자공장과 베스수리공부서 등 현장에 나가게 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주며 그들은 늘 바쁜 나날을 보냈다.

김광철동무는 몇해전 무케도전자의 자적절환속기장치전동기속도조종장치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였을 때 국민군들이 한

### 현

아직은 날이 밝지 않은 새벽이다.

현무무케도전자사업소 현무대대를 떠나는 무케도전자 903호의 경적소리가 새벽고요를 깨며 울린다. 운전사는 29년째 903호전차를 모는 오영수동무이다.

이 전차의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시작무케도전자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년건 어김없이 지켜온 그의 일과이다. 그 나날 그가 달린 운행길은 수백km, 수송한 려객은 연 수천명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건의 장외고인을 하여 전차의 실용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오늘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노드시오던 무케도전자 200호를 운전하며 수도의 거리를

기판만 해도 수백대나 된다고 한다. 그는 자제로 기관사동기를 제작하여 기관사의 질을 높이고 기관의 수명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차침대는 수수하고 말수더구는 없어도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인고 묵묵히 혁명초소를 지키려는 그들이야말로 돌보이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우리 수고를 알거나 할가 하고 생각본적은 없습니. 그저 세 차나 다름없이 수리한 베스나 전차들이 수도의 거리를 생생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혁신자로 자랑많은 운전사들의 뒤에는 수도려객운수부문에 사 소문없이 헌신하고있는 수리공들이 있다.

로동공베스사업소 수리대대의 정동무는 41년째 수리공으로 일해오고있다. 고압연유베스의 재성과 수리에 열정을 바쳐 려객수송에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그 나날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었다.

소대장 김주성동무는 베스기판수리에서 누구도 따르지 못할 기능공이다.

제대되어 수도려객운수부에서 첫발을 댄 때로부터 지난 34년간 그가 수리한 베스의

### 번

《하루와 같이 수도의 거리를 돌 수리며 약동하는 조국과 숨결을 함께 하는것이 우리 수도 려객복사자들의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70나이를 가까이하는 오늘까지 정동무는 놓지 않는 서령양무케도전자사업소 공존자동차운전사 조준길동무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이다.

고대를 마치고 다른 운전사들의 전차정비를 도와주고 그러다가 밤교대가 끝날 때쯤이면 마지막전차를 타고 로선을 돌면서 고장이 나서 멎어선 전차는 없는가, 경류수에 서있는 손님들이 없는가를 알아보는것은 수십

번

혁신자로 자랑많은 운전사들의 뒤에는 수도려객운수부문에 사 소문없이 헌신하고있는 수리공들이 있다.

로동공베스사업소 수리대대의 정동무는 41년째 수리공으로 일해오고있다. 고압연유베스의 재성과 수리에 열정을 바쳐 려객수송에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그 나날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었다.

소대장 김주성동무는 베스기판수리에서 누구도 따르지 못할 기능공이다.

제대되어 수도려객운수부에서 첫발을 댄 때로부터 지난 34년간 그가 수리한 베스의

기판만 해도 수백대나 된다고 한다. 그는 자제로 기관사동기를 제작하여 기관사의 질을 높이고 기관의 수명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차침대는 수수하고 말수더구는 없어도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인고 묵묵히 혁명초소를 지키려는 그들이야말로 돌보이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우리 수고를 알거나 할가 하고 생각본적은 없습니. 그저 세 차나 다름없이 수리한 베스나 전차들이 수도의 거리를 생생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혁신자로 자랑많은 운전사들의 뒤에는 수도려객운수부문에 사 소문없이 헌신하고있는 수리공들이 있다.

로동공베스사업소 수리대대의 정동무는 41년째 수리공으로 일해오고있다. 고압연유베스의 재성과 수리에 열정을 바쳐 려객수송에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그 나날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었다.

소대장 김주성동무는 베스기판수리에서 누구도 따르지 못할 기능공이다.

제대되어 수도려객운수부에서 첫발을 댄 때로부터 지난 34년간 그가 수리한 베스의

혁신자로 자랑많은 운전사들의 뒤에는 수도려객운수부문에 사 소문없이 헌신하고있는 수리공들이 있다.

로동공베스사업소 수리대대의 정동무는 41년째 수리공으로 일해오고있다. 고압연유베스의 재성과 수리에 열정을 바쳐 려객수송에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그 나날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었다.

소대장 김주성동무는 베스기판수리에서 누구도 따르지 못할 기능공이다.

제대되어 수도려객운수부에서 첫발을 댄 때로부터 지난 34년간 그가 수리한 베스의

### 대흥고려약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일장에서 대중을 이끌어가는 기쁨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불 수심병의 녀인들이 대흥군의 높고 깊은 산발과 골짜기를 누벼가고있었다. 산중에 초막을 치고 한달가까이 약초를 채취하고있는 지베인 방촌회동무를 비롯한 대흥고려약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었다.

지베인이 직접 종업원들을 이끌고 산지에 오른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그가 지베인으로 갖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다. 생산을 정상화하고자고보니 그에 필요한 약초가 어방없이 모자랐다. 그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약초채취과제를 주고 그들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종업원들의 의견은 달랐다. 녀성이 대부분인 종업원들의 힘으로 높고 험하기로 소문난 대흥군의 산발을 타며 그 많은 약초를 채취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지베인의 생각이 깊었지만 다

른 방도는 없었다.

그런데 약초채취의 첫날부터 지베인은 자기가 내세운 전투계획이 얼마나 힘에 부친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은종일 손톱이 모지라치게 약초를 채취해도 고작 10kg 밖에 되지 않았던것이다. 비록 전투계획에는 못미치지만 20kg이상의 해제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일군이 자기 부면에 정통하지 못하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옮겨 이끌어나갈 수 없다는것을.

그날 밤 방촌회동무를 약초채취에 능숙한 종업원을 이끌고 조용히 초막을 나갔다. 그리고 온밤 그와 함께 산발을 타며 약초는 방법과 묘리를 터득했다.

다음날 이른새벽에 40kg이나 되는 약초를 지고 초막에 들어서서 지베인을 종업원 모두가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베인이 산비탈을 갈다같이 하리 무거운 약초를 지고있는 사명을 다는 알수 없었다.

그해 공장을 한해동안 스고도 남을 많은 량의 약초를 확보하게 되었다.

약초채취로부터 공장활성화의 불길을 지닌 지베인의 뒤를 따라 종업원 모두가 생산전열을 이끈시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던 때였다.

이때에도 지베인은 자기가 직접 땅지를 들고 높이가 10m나 되는 발판에서 올라와서 휘저어 밭을 윤라와 그에게서 땅지를 뺏으려 하는 당세포위헌장에게 방촌회동무를 조

용히 말했다.

《세로위헌장동무, 제가 넘어지지 않게 꼭 잡아주십시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의 나날속에서 공장의 면모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갔으며 얼마후 대흥고려약공장의 생산전열은 군것으로 첫순가락에 접히는 현대적인 건물로 일신되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군내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자각은 부족되는 제약설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이미 공장개건보수를 통해 자기 힘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확신한 이들은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알기름비 못한 제약설비들을 하나하나 갖추어나갔다.

오늘 대흥고려약공장은 현대적인 제약설비들을 그른것 갖추어놓고 여러가지 고려약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해내고있다.

지난 1월 평양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로써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마음속에서 굳게 다져왔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 불을의 로고를 바쳐 자고계시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높은 뜻을 빛나는 실천으로 받들어 오십시오!

오늘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날마다 헌신적인 성과를 이룩해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남 호

## 남다른 애착, 보람과 긍지

### 강계시평의봉사관리소 가족신발수리소 김봉훈, 정춘화부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살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있다고 있는것이 아니라 사의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가에 있다고 있습니다.》

강계시 봉봉에는 사람들 누구나 잘 아는 가족신발수리소가 있다.

20여년전 한일터에서 함께 일해오고있는 김봉훈, 정춘화부부,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김봉훈동무는 원래 자동차운전사였다. 땅을 걸어다니는 날보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날이 더 많았던 그에게 있어서 사실 신발수리공은 인원이 먼 직업이었다. 바로 그가 신발수리를 배우게 된다는 사연이 있다.

20여년전 어느날 그는 뜻밖의 일로 더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주의보전제도의 품속에서 두번다시 생을 받아안고 병원을 나서는데 그의 생각은 깊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국가적예뻐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었지만 그럴수록 당면한 그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높여왔다.

피가 펴릴 줄은 30대였다. 더우기는 나라가 허리머를 조이면서 사회주의를 지켜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였다.

(다리는 제대로 쓸수 없었지만 나에게는 성한 두손이 있지 않은가.)

이것저것 닦아내다 손에 일감을 쥐여보며 나래에 조공이나 보탬이 될 일임을 하고싶은데 대가면 그때 안해인 정춘화동무가 한 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공공거리며 손작업을 하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면 아버지가 볼록 그에게 신발수리를 배워보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싯곳 대답을 못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말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사회와 인민을 위한것이네. 어느 직업이나 다 귀한이지.》

그 아버지는 오랜 신발수리공이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보람차고 또 인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여기며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하는데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겼다.

얼마후부터 김봉훈동무는 아버지가 생의껏 마련해준 수리도구를 가지고 신발을 수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안해도 남편을 도와 마음과 일손을 합치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강계시의 어느 한 거리에는 시방위원회일군들의 관심속에 가족신발수리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신발을 수리할 때마다 그들은 손님들이 아니라 자기의 신발을 수리한다고 생각하곤 하였다. 가족신발수리소의 단골손님들은 점점 늘어났다. 그럴수록 그들은 손님들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였다.

신발을 수리한 흔적까지 없애 줄수는 없었지만.

머칠을 두고 고심하며 트론을 저돌하던 부부는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다. 신발 앞부분을 수리한 후에는 모양 또는 장식으로 마블인수를 만들어주고 뒤족을 수리할 때에는 장식미를 만들어주어 수리본적을 가리워 주니 손님들의 호평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마블인수를 완성하기 위해 정춘화동무가 얼마나 많은 땅을 흘렸는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나날에 그들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진것은 봉사성은 어디까지나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스네데서 나라나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이었다.

그들부부는 이동봉사의 길에 올랐다. 영애군인가정들과 강계시의 주요건설장들을 찾아 그들은 헌신적봉사의 길을 이어갔다. 그들의 걸음은 원근길로 이어졌고 그 길에서 그들부부는 인민군인들의 정신세계를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기었다.

오랜 세월 뱃사람이 애국의 마음을 바쳐온 그 나날에 그들

부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았으며 아들들은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인민군포방까지 되었다. 힘들 때마다 그들부부는 아들 김성철동무가 초소에서 보내어온 편지를 읽어 보곤 한다.

《월말 시절에는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묻는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랑합니다. 나의 부모는 신발수리공이라고, 어머니는 인민의 대의원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정춘화동무는 말하였다.

《손님들의 기쁨은 우리에게 더없는 행복이고 긍지입니다.》

본사기자 조 향 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살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있다고 있는것이 아니라 사의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가에 있다고 있습니다.》

강계시 봉봉에는 사람들 누구나 잘 아는 가족신발수리소가 있다.

20여년전 한일터에서 함께 일해오고있는 김봉훈, 정춘화부부,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김봉훈동무는 원래 자동차운전사였다. 땅을 걸어다니는 날보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날이 더 많았던 그에게 있어서 사실 신발수리공은 인원이 먼 직업이었다. 바로 그가 신발수리를 배우게 된다는 사연이 있다.

20여년전 어느날 그는 뜻밖의 일로 더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주의보전제도의 품속에서 두번다시 생을 받아안고 병원을 나서는데 그의 생각은 깊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국가적예뻐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었지만 그럴수록 당면한 그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높여왔다.

피가 펴릴 줄은 30대였다. 더우기는 나라가 허리머를 조이면서 사회주의를 지켜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였다.

(다리는 제대로 쓸수 없었지만 나에게는 성한 두손이 있지 않은가.)

이것저것 닦아내다 손에 일감을 쥐여보며 나래에 조공이나 보탬이 될 일임을 하고싶은데 대가면 그때 안해인 정춘화동무가 한 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공공거리며 손작업을 하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면 아버지가 볼록 그에게 신발수리를 배워보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싯곳 대답을 못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말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사회와 인민을 위한것이네. 어느 직업이나 다 귀한이지.》

그 아버지는 오랜 신발수리공이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보람차고 또 인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여기며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하는데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겼다.

얼마후부터 김봉훈동무는 아버지가 생의껏 마련해준 수리도구를 가지고 신발을 수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안해도 남편을 도와 마음과 일손을 합치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강계시의 어느 한 거리에는 시방위원회일군들의 관심속에 가족신발수리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신발을 수리할 때마다 그들은 손님들이 아니라 자기의 신발을 수리한다고 생각하곤 하였다. 가족신발수리소의 단골손님들은 점점 늘어났다. 그럴수록 그들은 손님들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였다.

신발을 수리한 흔적까지 없애 줄수는 없었지만.

머칠을 두고 고심하며 트론을 저돌하던 부부는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다. 신발 앞부분을 수리한 후에는 모양 또는 장식으로 마블인수를 만들어주고 뒤족을 수리할 때에는 장식미를 만들어주어 수리본적을 가리워 주니 손님들의 호평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마블인수를 완성하기 위해 정춘화동무가 얼마나 많은 땅을 흘렸는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나날에 그들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진것은 봉사성은 어디까지나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스네데서 나라나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이었다.

그들부부는 이동봉사의 길에 올랐다. 영애군인가정들과 강계시의 주요건설장들을 찾아 그들은 헌신적봉사의 길을 이어갔다. 그들의 걸음은 원근길로 이어졌고 그 길에서 그들부부는 인민군인들의 정신세계를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기었다.

오랜 세월 뱃사람이 애국의 마음을 바쳐온 그 나날에 그들

부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았으며 아들들은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인민군포방까지 되었다. 힘들 때마다 그들부부는 아들 김성철동무가 초소에서 보내어온 편지를 읽어 보곤 한다.

《월말 시절에는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묻는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랑합니다. 나의 부모는 신발수리공이라고, 어머니는 인민의 대의원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정춘화동무는 말하였다.

《손님들의 기쁨은 우리에게 더없는 행복이고 긍지입니다.》

본사기자 조 향 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살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있다고 있는것이 아니라 사의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가에 있다고 있습니다.》

강계시 봉봉에는 사람들 누구나 잘 아는 가족신발수리소가 있다.

20여년전 한일터에서 함께 일해오고있는 김봉훈, 정춘화부부,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김봉훈동무는 원래 자동차운전사였다. 땅을 걸어다니는 날보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날이 더 많았던 그에게 있어서 사실 신발수리공은 인원이 먼 직업이었다. 바로 그가 신발수리를 배우게 된다는 사연이 있다.

20여년전 어느날 그는 뜻밖의 일로 더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주의보전제도의 품속에서 두번다시 생을 받아안고 병원을 나서는데 그의 생각은 깊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국가적예뻐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었지만 그럴수록 당면한 그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높여왔다.

피가 펴릴 줄은 30대였다. 더우기는 나라가 허리머를 조이면서 사회주의를 지켜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였다.

(다리는 제대로 쓸수 없었지만 나에게는 성한 두손이 있지 않은가.)

이것저것 닦아내다 손에 일감을 쥐여보며 나래에 조공이나 보탬이 될 일임을 하고싶은데 대가면 그때 안해인 정춘화동무가 한 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공공거리며 손작업을 하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면 아버지가 볼록 그에게 신발수리를 배워보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싯곳 대답을 못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말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사회와 인민을 위한것이네. 어느 직업이나 다 귀한이지.》

그 아버지는 오랜 신발수리공이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보람차고 또 인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여기며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하는데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겼다.

얼마후부터 김봉훈동무는 아버지가 생의껏 마련해준 수리도구를 가지고 신발을 수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안해도 남편을 도와 마음과 일손을 합치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강계시의 어느 한 거리에는 시방위원회일군들의 관심속에 가족신발수리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신발을 수리할 때마다 그들은 손님들이 아니라 자기의 신발을 수리한다고 생각하곤 하였다. 가족신발수리소의 단골손님들은 점점 늘어났다. 그럴수록 그들은 손님들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였다.

신발을 수리한 흔적까지 없애 줄수는 없었지만.

머칠을 두고 고심하며 트론을 저돌하던 부부는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다. 신발 앞부분을 수리한 후에는 모양 또는 장식으로 마블인수를 만들어주고 뒤족을 수리할 때에는 장식미를 만들어주어 수리본적을 가리워 주니 손님들의 호평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마블인수를 완성하기 위해 정춘화동무가 얼마나 많은 땅을 흘렸는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나날에 그들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진것은 봉사성은 어디까지나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스네데서 나라나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이었다.

그들부부는 이동봉사의 길에 올랐다. 영애군인가정들과 강계시의 주요건설장들을 찾아 그들은 헌신적봉사의 길을 이어갔다. 그들의 걸음은 원근길로 이어졌고 그 길에서 그들부부는 인민군인들의 정신세계를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기었다.

오랜 세월 뱃사람이 애국의 마음을 바쳐온 그 나날에 그들

부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았으며 아들들은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인민군포방까지 되었다. 힘들 때마다 그들부부는 아들 김성철동무가 초소에서 보내어온 편지를 읽어 보곤 한다.

《월말 시절에는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묻는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랑합니다. 나의 부모는 신발수리공이라고, 어머니는 인민의 대의원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정춘화동무는 말하였다.

《손님들의 기쁨은 우리에게 더없는 행복이고 긍지입니다.》

본사기자 조 향 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살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있다고 있는것이 아니라 사의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가에 있다고 있습니다.》

강계시 봉봉에는 사람들 누구나 잘 아는 가족신발수리소가 있다.

20여년전 한일터에서 함께 일해오고있는 김봉훈, 정춘화부부,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김봉훈동무는 원래 자동차운전사였다. 땅을 걸어다니는 날보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날이 더 많았던 그에게 있어서 사실 신발수리공은 인원이 먼 직업이었다. 바로 그가 신발수리를 배우게 된다는 사연이 있다.

20여년전 어느날 그는 뜻밖의 일로 더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주의보전제도의 품속에서 두번다시 생을 받아안고 병원을 나서는데 그의 생각은 깊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국가적예뻐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었지만 그럴수록 당면한 그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높여왔다.

피가 펴릴 줄은 30대였다. 더우기는 나라가 허리머를 조이면서 사회주의를 지켜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였다.

(다리는 제대로 쓸수 없었지만 나에게는 성한 두손이 있지 않은가.)

이것저것 닦아내다 손에 일감을 쥐여보며 나래에 조공이나 보탬이 될 일임을 하고싶은데 대가면 그때 안해인 정춘화동무가 한 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공공거리며 손작업을 하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면 아버지가 볼록 그에게 신발수리를 배워보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싯곳 대답을 못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말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사회와 인민을 위한것이네. 어느 직업이나 다 귀한이지.》

그 아버지는 오랜 신발수리공이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보람차고 또 인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여기며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하는데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겼다.

얼마후부터 김봉훈동무는 아버지가 생의껏 마련해준 수리도구를 가지고 신발을 수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안해도 남편을 도와 마음과 일손을 합치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강계시의 어느 한 거리에는 시방위원회일군들의 관심속에 가족신발수리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신발을 수리할 때마다 그들은 손님들이 아니라 자기의 신발을 수리한다고 생각하곤 하였다. 가족신발수리소의 단골손님들은 점점 늘어났다. 그럴수록 그들은 손님들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였다.

신발을 수리한 흔적까지 없애 줄수는 없었지만.

머칠을 두고 고심하며 트론을 저돌하던 부부는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다. 신발 앞부분을 수리한 후에는 모양 또는 장식으로 마블인수를 만들어주고 뒤족을 수리할 때에는 장식미를 만들어주어 수리본적을 가리워 주니 손님들의 호평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마블인수를 완성하기 위해 정춘화동무가 얼마나 많은 땅을 흘렸는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나날에 그들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진것은 봉사성은 어디까지나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스네데서 나라나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이었다.

그들부부는 이동봉사의 길에 올랐다. 영애군인가정들과 강계시의 주요건설장들을 찾아 그들은 헌신적봉사의 길을 이어갔다. 그들의 걸음은 원근길로 이어졌고 그 길에서 그들부부는 인민군인들의 정신세계를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기었다.

오랜 세월 뱃사람이 애국의 마음을 바쳐온 그 나날에 그들

부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았으며 아들들은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인민군포방까지 되었다. 힘들 때마다 그들부부는 아들 김성철동무가 초소에서 보내어온 편지를 읽어 보곤 한다.

《월말 시절에는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묻는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랑합니다. 나의 부모는 신발수리공이라고, 어머니는 인민의 대의원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정춘화동무는 말하였다.

《손님들의 기쁨은 우리에게 더없는 행복이고 긍지입니다.》

본사기자 조 향 선

##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세계교양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반세계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자주적성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은 불세계교양관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인식적회복시기에 은불세계교양관을 둘러싸고 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이 은불세계에서 감행한 야수적학살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수없이 전시되어있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인식적회복시기에 은불세계교양관을 둘러싸고 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은 군인구의 30%에 달하는 1만 3천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땀 강사정원속동무는 은불세계에서 감행된 학살행위를 세인 피를 흘리고는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은 군인구의 30%에 달하는 1만 3천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은불세계에서는 어느 하루도 인민들의 원한에 찬 울음소리가 울려진적이 없었으며 은불세계를 비롯해서 3개 면에서만도 수천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

로를 가지고 생동하게 이야기하였다.

이들들은 《발생자들은 씨를 없애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인민들에 대한 학살행위에 피눈이 되어 있었다.

눈물은 가려수없이라는 명목 밑에 학살과 강간으로 더러운 야욕을 채웠고 어느 한 리에서는 리인민위원장이 약질병명이

자들은 계급적원수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배앗길 저들의 목 처치를 되찾기 위해 죽을 때까지 발악한다는 것을 더욱 특특히 새겨안게 되었다.

격분을 금치 못해하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어느 한 사건을 가리키며 해설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은 은불평안 증산평

배어 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흥분, 감기만으로 인민 아들들이 로동당원이라고, 인민군대에 복무한다고 하여 감방에 가두어넣고 약탈한 고문을 들이대다가 마지막에는 증산평구 수직강에서 철부지 어린이, 부녀자들과 함께 생매장하여 죽이는 치명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어찌 은불평에서만 벌어진 학살행위인가.

이 땅 그 어디나 새겨진 미제의 극악한 살인행위는 오늘날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배어온 상처로 깊이 남아있다.

학기에 참관자들은 강사의 해설이 끝나자 하나와 같이 열변을 토했다.

이 땅을 피로 얼룩지게 한 미제를 전멸시켜 복수하라! 복수의 맹세를 다짐하는 참관자들의 피끓는 절규가 우리의 가슴을 쳤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억울하게 숨진 인민들의 피끓는 기억이, 기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정영 철

배어 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흥분, 감기만으로 인민 아들들이 로동당원이라고, 인민군대에 복무한다고 하여 감방에 가두어넣고 약탈한 고문을 들이대다가 마지막에는 증산평구 수직강에서 철부지 어린이, 부녀자들과 함께 생매장하여 죽이는 치명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어찌 은불평에서만 벌어진 학살행위인가.

이 땅 그 어디나 새겨진 미제의 극악한 살인행위는 오늘날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배어온 상처로 깊이 남아있다.

학기에 참관자들은 강사의 해설이 끝나자 하나와 같이 열변을 토했다.

이 땅을 피로 얼룩지게 한 미제를 전멸시켜 복수하라! 복수의 맹세를 다짐하는 참관자들의 피끓는 절규가 우리의 가슴을 쳤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억울하게 숨진 인민들의 피끓는 기억이, 기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정영 철

## 기어이 사무친 원한을 풀리라

### 은 불세계교양관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반세계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자주적성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은 불세계교양관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인식적회복시기에 은불세계교양관을 둘러싸고 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이 은불세계에서 감행한 야수적학살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수없이 전시되어있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인식적회복시기에 은불세계교양관을 둘러싸고 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은 군인구의 30%에 달하는 1만 3천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땀 강사정원속동무는 은불세계에서 감행된 학살행위를 세인 피를 흘리고는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은 군인구의 30%에 달하는 1만 3천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은불세계에서는 어느 하루도 인민들의 원한에 찬 울음소리가 울려진적이 없었으며 은불세계를 비롯해서 3개 면에서만도 수천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

로를 가지고 생동하게 이야기하였다.

이들들은 《발생자들은 씨를 없애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인민들에 대한 학살행위에 피눈이 되어 있었다.

눈물은 가려수없이라는 명목 밑에 학살과 강간으로 더러운 야욕을 채웠고 어느 한 리에서는 리인민위원장이 약질병명이

자들은 계급적원수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배앗길 저들의 목 처치를 되찾기 위해 죽을 때까지 발악한다는 것을 더욱 특특히 새겨안게 되었다.

격분을 금치 못해하는 참관들에게 강사는 어느 한 사건을 가리키며 해설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은 은불평안 증산평

배어 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흥분, 감기만으로 인민 아들들이 로동당원이라고, 인민군대에 복무한다고 하여 감방에 가두어넣고 약탈한 고문을 들이대다가 마지막에는 증산평구 수직강에서 철부지 어린이, 부녀자들과 함께 생매장하여 죽이는 치명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어찌 은불평에서만 벌어진 학살행위인가.

이 땅 그 어디나 새겨진 미제의 극악한 살인행위는 오늘날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배어온 상처로 깊이 남아있다.

학기에 참관자들은 강사의 해설이 끝나자 하나와 같이 열변을 토했다.

이 땅을 피로 얼룩지게 한 미제를 전멸시켜 복수하라! 복수의 맹세를 다짐하는 참관자들의 피끓는 절규가 우리의 가슴을 쳤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억울하게 숨진 인민들의 피끓는 기억이, 기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정영 철

배어 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흥분, 감기만으로 인민 아들들이 로동당원이라고, 인민군대에 복무한다고 하여 감방에 가두어넣고 약탈한 고문을 들이대다가 마지막에는 증산평구 수직강에서 철부지 어린이, 부녀자들과 함께 생매장하여 죽이는 치명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어찌 은불평에서만 벌어진 학살행위인가.

이 땅 그 어디나 새겨진 미제의 극악한 살인행위는 오늘날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배어온 상처로 깊이 남아있다.

학기에 참관자들은 강사의 해설이 끝나자 하나와 같이 열변을 토했다.

이 땅을 피로 얼룩지게 한 미제를 전멸시켜 복수하라! 복수의 맹세를 다짐하는 참관자들의 피끓는 절규가 우리의 가슴을 쳤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억울하게 숨진 인민들의 피끓는 기억이, 기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정영 철

## 계급교양의 도수를 높여

### 개성시 월정리당위원회에서

### 화실포도인, 용봉포도인, 시평송

### 발포포도인 등 여러 계급들을 통하여

### 계급교양의 실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 이 교양방에 서린 피의 원한을

### 순간도 잊지 않도록 교양사업을

### 계급교양사업

# 애국위업의 밝은 미래를 담보해주는 불멸의 기치

총련은 그 결성과 강화발전, 지도리념과 투쟁로정 등 그 어느것이나 배두산철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 뜨거운 동포애와 매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해외교포조직이 있지만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총정의 열도에 있어서나 조직의 규모와 활동범위, 단결력과 전투력이 있어서 총련과 같이 애국애족적이 강위력한 해외교포조직은 없다. 한식술로 풀어주고 이끌어주는 결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현명한 령도가 이런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왔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이 걸어난 자랑스러운 력사에는 총련을 전체 재일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표하는 주체적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깃들여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제 84(1995)년 5월 24일 총련결성 40주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대하여》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제 104(2015)년 5월 25일 총련결성 60주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서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전향적국면을 열고 그 밝은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투쟁강령으로, 총련에국위업의 위대한 사명감을 부여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한은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단계에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집대성된 불멸의 총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한에서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쌓아올린 애국위업의 불멸의 의미를 전격적으로

으로 집대성하시고 총련의 모든 사업을 수령님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며 주체사상을 지도사상, 항도적기치로 변형없이 높이 들고나가는것을 총련의 기본사업방향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기법과 특강으로 혁명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은 이역의 아들딸들의 가슴속에 필승의 신심이 용솨음치게 한 원동력이였다. 그 위대한 기치아래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참가 어려운 시련의 고비, 고난의 언덕을 넘고해마다 애국의 길에 힘과 열정, 지혜를 다 바쳐올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총련결성 60주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서한에서 총련이 걸어난 로정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해외공민동사상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진실로 수놓아진 은사로써 사랑의 력사로 총련에 주시고 총련이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사업방향과 중심과제,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이 력사적서한의 발표는 총련에국위업의 앞길에 뚜렷한 리정표를 세우려는 력사적사상으로써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동지애, 숭고한 동포애의 최고정화이다.

총련의 애국활동에서 언제나 끈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제들과 그 실천을 위한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는 결세위인들의 력사적서한들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파시되었다. 총련은 자기 수명, 자기 조국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일심단결의 위력을 높이 펼치는 참다운 주체의 애국조직으로, 광범한 동포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애국총정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는 불멸의 대대로 자라났다.

뜻깊은 로작발표기념일들을 맞으며 전체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력사적인 시한들에 어머없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결세위인들에 대한 답답없는 감사와 총정의 마음으로 가슴깊에 새기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은 재일조선인운동의 불멸의 기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지금 전체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총련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불멸의 대장으로 끈튼히 틀어쥐고 결렬히 응호고수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일심단결 높이 받들어오신 전체대중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오갈 것이였다.

사상적, 힘, 일심단결의 위력은 영원히 변함없는 총련의 불멸의 힘의 원천이다. 총련은 배두산철세위인들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한담을함함으로 굳게 뭉쳐 동지적단결로 시작된 애국위업을 동지애의 위력으로 끝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모든 총련인군들은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서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총련의 힘이 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조국과 분투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선봉로 굳건히 다지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리리와 행복을 앞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할수 있는 동포들이 총련조직을 어머니함으로 여기고 진실으로 믿고 사랑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위대성교양과 집결애국정신을 교양, 신념교양,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와 전통에 대한 신전교양사업을 꾸준히 벌여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이 사회주의적

의 불멸성과 총련애국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전세대들이 걸어난 애국애족의 길을 변함없이 역세게 걸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교육사업, 새 세대 육성사업은 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을 잇는 중요한 사업이며 애국활동의 출발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애국의 뜨거운 불꽃을, 애국인재들을 더 많이 키우며 민족문화활동을 활발히 벌여 동포사회에 우리의 고유한 민족성이 차민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일본당국의 온갖 차별조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민족적행위를 반대하여 결렬히 투쟁하여야 한다.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의 통일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며 그 길에 애국애족의 자랑찬 흔적을 뚜렷이 남겨야 한다.

지금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배심은 든든하고 기세도 총천연이다. 공과사나나 시대의 헌분념에서 서서 력사의 커를 역세게 틀어쥐고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에 대한 총련의 충실성과 애국애족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며 그들은 결세위인들의 강령적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완결하여 약속하며 활력에 넘쳐 전향하는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보낼것을 열망하고 있다.

총련에도 끊임없는 의지를 주고 애국의 신념을 버려주지 않는, 필승의 빛을 주는 태양의 성상을 마음속에 안고 사는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이 세상이 천만년 변한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애국애족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갈것이다.

결세위인들의 강령적서한들을 불멸의 기치로 추구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거머쥐어 나가야 할 때, 처나선 그들의 힘찬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허영민

#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축하하여 방글라데시자리아당, 공산당, 공산당(삼스-케닌주의), 인민혁명, 사회주의당, 방글라데시 조선인민 및 연대성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선군정치연구소가 4월 30일 연합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의 북남수뇌분열에서 상봉과 회담에서 북남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개척해나감에 조선민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합의의정서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조선민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민족과 친북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 것이다.

특히 북남수뇌분열에서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을 일으키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는 매우 중대한 업적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는 뜨거운 동포애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전향적국면을 마련한 조선인민에게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드린다. 제3차 북남수뇌상봉을 축하하여 로므니아정당, 단체들이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의 기간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민족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는 력사적인 관문점선언에는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북남대결상태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가 밝혀졌다. 우리는 분별과 대결의 상징인 관문점에서 선언이 채택된것과 관련하여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로므니아근로자협회는 북남수뇌상봉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로므니아조선인민협회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우리는 뜨거운 동포애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전향적국면을 마련한 조선인민에게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

선 및 연대성위원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는 관문점선언을 조선의 분열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리정표로 격찬하고있다.

관문점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선언이 발표된것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의 발현이다. 우리는 관문점선언이 조선민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조선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으로 된다고 간주하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한다

우연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은 관문점선언이 가지는 력사적의의를 인정하고 그에 응하는 온갖 선언이 반드시 리행되도록 사심없는 성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계평화와 안전을 비라는 사람이 없는 나라는 없다. 조선민족의 열망이 담긴 관문점선언을 적극 지지해서야 할것이다. 형제적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 남조선신문 일본의 철면포한 주장 비난

16일 남조선신문 퍼스트뉴스 《민중의 소리》가 일본당국이 《수도명원》을 주장하고 일본군사도문제 《합의》의 리행을 남조선에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외교문건을 내놓은데 대해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독도가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령토라는것은 온 세계의 공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하

## 남조선신문 일본의 철면포한 주장 비난

고 일본이 《수도명원》을 주장하는것은 우리 민족애를 저지른 죄악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성소문제 《합의》는 남북 《정부》가 국의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 남조선신문 일본의 철면포한 주장 비난

리한 《국적》통략의 하나이라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전일본인 일본이 피해자에게 일본군사도문제 《합의》를 리행하라고 하는것은 후안무치의 극단으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전일본인 일본은 조선반도의 침략국인 일본은 조선반도의

## 남조선신문 일본의 철면포한 주장 비난

분별과 민족의 대립에 큰 적의인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일본이 과거의 범죄를 은폐하고 회개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막호자신세를 면할수 없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남조선신문 일본의 철면포한 주장 비난

《미국이 력사로 정립하였던 지역들에서 감행한 대중적학살과 고문들은 히틀러나치들이 력사로 정립하였던 유럽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랄하다.》

이것은 1951년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미제가 저지른 만행들을 현지조선인 국제민주여성평화조성단의 보고서에 반영되어있는 한 대목이다.

미제는 세계전쟁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공화국북반부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해나고 살육하였다.

미제살인귀족의 처벌에는 야수적만행은 커다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1950년 10월 신천평에 침략의 더러운 군화발을 들여놓자 미제는 미군우두머리라는 '나'의 명령은 곧 불행이다. 이를 위반하는자는 총살한다. 신천에서 살이유적이라는 모튼을 제가루속에 파묻으라.》고 떠벌이였다.

## 남조선신문 일본의 철면포한 주장 비난

다. 이 살인명령에 따라 신천평에서는 력사가 일제히 잊혀지지 않는 대중적학살만행이 그칠새없이 진행되었다.

미제 살인귀족은 10월 18일 전 신천군당방공호에 900여명의 주민들을 가두어 넣고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죽였다. 19일과 23일에는 군당방공호주변에서 무려 650여명을 생매장하거나 불태워죽였다.

무제침략자들은 원일리 밤나무를 화약창고에 어린이들을 비롯한 무고한 주민들을 가두어넣고 이것을 함축한 살육터로 만들어놓았다.

미제아수들은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있는것은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하면서 당장 배내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찾아 예가라 죽게 하고 아이들은 어머니를 찾아 간이 말라 죽게 하고 죽였었다.

불부지런이었던 어머니의 몸에서 딸이내것을 성차지 않

## 남조선신문 일본의 철면포한 주장 비난

아 배고파 애처롭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휘발유를 붓고 어머니들의 머리위에 불을주고 슈류탄을 던지였다. 그리하여 화약창고에서만든 400명의 어머니와 102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910명의 평화적주민들이 학살되었다.

미제살인귀족들은 모범도둑자라고 하여 두대의 딸지에게 향타리를 갈아내고 소를 반만방향으로 몰아 사지를 찢어내었고 로동당원이라고 하여 눈알을 뽑고 심장을 도려내어 죽였으며 열성도원이라고 하여 머리에서 못을 박고 돌로 쳐서 죽이고 고놈들의 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최후로 코를 깨어 끌고다니다가 목숨을 내리쳐죽었다.

이렇듯 미제는 신천군에서만 50여명인민군에 군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380여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 남조선신문 일본의 철면포한 주장 비난

감행하였다. 그가운데는 어린이와 노인, 여성들만 하여도 1만 6200여명이 되었다.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미제의 극악한 학살만행은 비단 신천에서만 감행된것이 아니었다.

1950년 10월 은룡방산에 기여여 200여명의 방산도둑자들과 그 가족들을 10명씩 쇠줄로 배를 묶어 평지에 집어넣어 죽였다. 11월 평안북도 정주군 창도에 기여올라 그 섬에 살고있던 주민 580명을 모조리 학살한것, 11월 중순 함남도에 함주군 상조양면 분리에서 로동당원의 가족 20여명을 체포하여 도끼로 찍어죽이고 그 시체마저 불태워버린것을 비롯하여 공화국북반부 그 어디라 할것없이 미제아수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물이 되어 흘렀다.

미제침략자들은 일시적강점지역에서 쫓겨갈 때 더욱 핍포하게 대중적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살인귀족들은 패주하면서 감정적인 인민들을 강제로 남으로 끌고가다가 피로가 차단되고 자들마저 도망치기 어렵게 되자 대포와 비행기를 동원하여 사람들의 머리위에 포탄과 폭탄을 마구 퍼부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대항학살하였다.

미제의 야수적인 살인만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우리 나라의 인구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강인도와 평안북도, 황해도도 변하여 적지 않게 황폐화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위해 공화국북반부에서 123만여명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참으로 공화국북반부에서 감행된 미제의 인간살육만행은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행위, 극악무도한 범죄였다.

본사기자 림 원

# 날날이 드러난 강제유인람치범죄의 진상

최근 남조선에서 지난 2016년 4월에 일어난 우리 여성총연원들에 대한 강제유인람치사건의 진상이 날날이 드러났다. 그 의뢰한 사건은 박근혜당이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저들에게 불리한 정치장세를 억척질기며 총독대결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정보문을 통원하여 꾸며낸 특대형범죄사건이었다.

이것을 폭로한 남조선인문보도에 의해 우리 여성총연원들의 그 무슨 《집단합법》이라는것이 완전히 조작된 모략극이며 그들은 정정보문장태에 의해 강제유인람치되었다는것이 론박할수 없는 증거자료들로 립증되었다. 이로 하여도 지금 남조선 각계가 커가마하여 지금 남조선

인문보도에 의하면 정정보문에 수취하여 유인람치범죄에 가담한 인간살육죄는 정정보문의 한적이지 자기에게 《대통령》이 너를 기다린다. 무공훈장을 받고 정정보문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였으며 자기는 정정보문에서 짜조 각본으로 남조선으로 도주하였다고 실로하였다. 이자는 여성총연원들이 어디로 가든 그곳으로 따라오라고 자기도 그것도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고안되고 실행된것임을 나중에 알리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남조선으로 끌려간 우리 여성총연원들은 《자유한국당》을 출가는줄로만 알았다. 《남조선》으로 간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부도형제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들어가 고되고 애매하게 호소하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우

## 남조선신문 일본의 철면포한 주장 비난

리 여성총연원들의 《집단합법》사건이라는것에 대해 의혹을 표시하면서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명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그치지 않았다. 한투명도 아니고 10여명이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움직이면서도 그렇듯 신속하게 남조선에 도착한것은 외교부와 정보원의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사건을 이례적으로 공개한것은 누가 보아도 선거운동을 노렸었다는 주장들이 계속 울려나왔다. 이런 속에 남조선 각계는 우리 여성총연원들의 총한을 요구하는 운동은 줄기차게 벌어졌다.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건이 《국회》의원선거전에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집단합법》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피해자들과 외부와의 일체 접촉이 차단되어 그들의 안부조차 확인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당국에 그들의 면담을 허용할 것과 사건의 진상을 밝힐것을 시종일관 요구하였다. 국제사회에 남조선당국이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들이 가족들과 만나도록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주장해나갔다.

그러나 박근혜당은 벨렌스럼제도 그 무슨 《자유의사에 따른다》이라고 떠벌이였는가 하면 피해자들을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고도 남조선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역적주장》이니, 《책임전가들 위한것》이니 하고 곱고명명 한 하여 남조선의 강제유인람치범죄를 단번에 해탈하고 절규하는

## 남조선신문 일본의 철면포한 주장 비난

부도들을 향해서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인권을 공개할수 없다.》는 통이 당장 있는 망망한 공명으로서 범죄의 진상을 파악속에 덮어씌워지고 퍼져왔다. 하지만 박근혜당이 집으로 돌려보내줄것을 요구해나서는 우리 여성총연원들의 순진한 마음을 어지럽히고 흔들기 위해 애달란 《귀순》공작에 매달린 사실, 강제결혼의 방편으로 그들이 《정착하여 인권을 생활》을 하고 있는듯이 허튼 여론을 내뿜려서 한 사실, 우리 여성총연원들의 면담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진보적인 변호사들을 《총독세력》으로 몰며 위협공갈한 사실 등은 그 무슨 《집단합법》이라는것이 너무나도 많은 남조선에서 불분한 정치적목적들을 위해 꾸며낸 상상수레없는 모략극이라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자주들의 총탄은 절대로 감출수 없는 법이다. 강제유인람치음모에 가담한 범죄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해 박근혜당이 지금까지 늘어놓았던 《자유의사에 의한 집단합법》이라는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며 그것은 당시 《대북제재포과》가 나타나고있었듯이 크게 떠벌어 동태대결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고 20대 《국회》의원선거의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킬 총계미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반공화국모략극, 특대형범죄사건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당의 처벌되는 만인들적범죄행위가 공개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강제유인람치범죄는 《북의 여성총연원들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합치되었다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당국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여성총연원들의 즉각 총한, 정정보문과 강력히 요구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강제유인람치사건 관련자들이 정정보문 리행조와 정 정본인 리행조 등을 집행에 고발하는 등 법적투쟁에 나서고있다.

남조선보수세력이야말로 저들의 정치적목적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행을 음모조작, 불법범부의 모략행위도 서슴치 않는 천하의 무한한, 자기합법제 무리이며 인문보도에 의해 남조선에 인준에 없는 강제합치였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겨레는 박근혜당도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민족내부에 더이상 살려둘수 없는 악적범죄자라는것을 다시금 폭탄의 깨달았다. 분노한 남조선의 강제유인람치에 노수남들에 의해 강제유인람치된 우리 여성총연원들을 즉각 총한할것을 요구하면서 박근혜를 비롯한 사건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주장하고있었다는 당연하다.

오늘과 같이 밝은 세상에서 박근혜당이 감행한 강제유인람치범죄가 용납될수 없다는것은 명명하다.

우리의 여성총연원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람치하고 《귀순》을 강요하며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한 박근혜당과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은 마땅히 국제법에서 끌어내어 인류의 존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본사기자 라 설 하

# 우리의 국권, 인권을 유린해온 만고죄악 나치스들도 얼굴을 뉘힐 야수적 만행

《미국이 력사로 정립하였던 지역들에서 감행한 대중적학살과 고문들은 히틀러나치들이 력사로 정립하였던 유럽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랄하다.》

이것은 1951년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미제가 저지른 만행들을 현지조선인 국제민주여성평화조성단의 보고서에 반영되어있는 한 대목이다.

미제는 세계전쟁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공화국북반부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해나고 살육하였다.

미제살인귀족의 처벌에는 야수적만행은 커다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다. 이 살인명령에 따라 신천평에서는 력사가 일제히 잊혀지지 않는 대중적학살만행이 그칠새없이 진행되었다.

미제 살인귀족은 10월 18일 전 신천군당방공호에 900여명의 주민들을 가두어 넣고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죽였다. 19일과 23일에는 군당방공호주변에서 무려 650여명을 생매장하거나 불태워죽였다.

무제침략자들은 원일리 밤나무를 화약창고에 어린이들을 비롯한 무고한 주민들을 가두어넣고 이것을 함축한 살육터로 만들어놓았다.

미제아수들은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있는것은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하면서 당장 배내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찾아 예가라 죽게 하고 아이들은 어머니를 찾아 간이 말라 죽게 하고 죽였었다.

아 배고파 애처롭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휘발유를 붓고 어머니들의 머리위에 불을주고 슈류탄을 던지였다. 그리하여 화약창고에서만든 400명의 어머니와 102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910명의 평화적주민들이 학살되었다.

미제살인귀족들은 모범도둑자라고 하여 두대의 딸지에게 향타리를 갈아내고 소를 반만방향으로 몰아 사지를 찢어내었고 로동당원이라고 하여 눈알을 뽑고 심장을 도려내어 죽였으며 열성도원이라고 하여 머리에서 못을 박고 돌로 쳐서 죽이고 고놈들의 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최후로 코를 깨어 끌고다니다가 목숨을 내리쳐죽었다.

이렇듯 미제는 신천군에서만 50여명인민군에 군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380여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그가운데는 어린이와 노인, 여성들만 하여도 1만 6200여명이 되었다.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미제의 극악한 학살만행은 비단 신천에서만 감행된것이 아니었다.

1950년 10월 은룡방산에 기여여 200여명의 방산도둑자들과 그 가족들을 10명씩 쇠줄로 배를 묶어 평지에 집어넣어 죽였다. 11월 평안북도 정주군 창도에 기여올라 그 섬에 살고있던 주민 580명을 모조리 학살한것, 11월 중순 함남도에 함주군 상조양면 분리에서 로동당원의 가족 20여명을 체포하여 도끼로 찍어죽이고 그 시체마저 불태워버린것을 비롯하여 공화국북반부 그 어디라 할것없이 미제아수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물이 되어 흘렀다.

미제침략자들은 일시적강점지역에서 쫓겨갈 때 더욱 핍포하게 대중적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살인귀족들은 패주하면서 감정적인 인민들을 강제로 남으로 끌고가다가 피로가 차단되고 자들마저 도망치기 어렵게 되자 대포와 비행기를 동원하여 사람들의 머리위에 포탄과 폭탄을 마구 퍼부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대항학살하였다.

참으로 공화국북반부에서 감행된 미제의 인간살육만행은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행위, 극악무도한 범죄였다.

## 중국 세계무역기구의 의무를 준수할것을 미국에 요구

세계무역기구주체 중국상임대표가 최근 기구총리사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강행 및 알루미늄관세부과조치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국가안전》수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국제무역질서를 심히 혼란시키고 다국적 무역세계에 피해를 주고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티나해방군 집행위원회 위원 한난 아쉬라라위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살육만행에 대해 규탄하고 파병을 파퇴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무드세로의 미군대사관인사를 반대하여 시위에 떨쳐나선 팔레스티나인들을 자기 학살하였다고 규탄하면서 자기 나라의 국제법에 배치되는 위험한 행동을 전면적으로 규탄하고 강조하였다.

## 이스라엘군의 살육만행을 규탄

팔레스티나해방군 집행위원회 위원 한난 아쉬라라위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살육만행에 대해 규탄하고 파병을 파퇴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무드세로의 미군대사관인사를 반대하여 시위에 떨쳐나선 팔레스티나인들을 자기 학살하였다고 규탄하면서 자기 나라의 국제법에 배치되는 위험한 행동을 전면적으로 규탄하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망동을 끝장내고 평화보장을 위해 노력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중국 세계무역기구의 의무를 준수할것을 미국에 요구

세계무역기구주체 중국상임대표가 최근 기구총리사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강행 및 알루미늄관세부과조치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국가안전》수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국제무역질서를 심히 혼란시키고 다국적 무역세계에 피해를 주고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티나해방군 집행위원회 위원 한난 아쉬라라위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살육만행에 대해 규탄하고 파병을 파퇴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